

#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 -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서영숙\*\*

### <차 례>

1. 머리말
2. 영남 서사민요의 유형별 전승양상
3. 영남 서사민요의 권역별 전승양상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영·호남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비교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영남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서사민요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유형별, 권역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영남 지역에서는 서사민요 유형 중 Ba 배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유형이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며,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 유형,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유형과 같은 혼인 전 여자의 애정 관련 유형이 많이 전승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유형을 비롯한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적게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과 대조된다.

다음 영남 지역을 영남 북서부권, 영남 북동부권, 영남 남부권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전승양상을 살펴본 결과 영남 남부권, 영남 북서부권, 영남 북동부권의 순서로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었다. 이는 영남 서남부권이 북동부권에 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A00113)

\*\* 한남대학교

해 양반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과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영남 북서부권은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영남 북동부권은 살림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영남 남부권은 애정 관련 서사민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전승되었다. 또한 영남 북동부권은 여성들에 의해 가사 향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서사민요 역시 교술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영남 남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정적 성향을 많이 드러내며, 호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과의 혼합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핵심어 :** 영남, 호남, 서사민요, 데이터베이스, 여성, 가사(歌辭), 전승양상, 비교, 유형, 문화권역, 문화적 교류

## 1.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의 서사민요 중 특히 영남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서사민요를 대상으로 한다.<sup>1)</sup> 특히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을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승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문학적, 문화적 특질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사민요가 풍부하게 전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서사민요를 비롯한 구비문학 조사가 영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남 지역이 서사민요를 풍부하게 전승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대한 고찰은 한국 서사민요 전승의 전반적인 상황

1) 서사민요의 개념 및 장르적 특징 등에 대해서는 줄고,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11-47쪽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남과 호남의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 두 지역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독자적인 생활권을 이루며 지내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변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두 지역 서사민요 역시 공통점과 함께 변별점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영남 지역 서사민요가 유형별, 권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전승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는 특히 영남 지역에서 서사민요의 어떤 유형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어떤 유형은 전승되지 않는지, 영남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서사민요의 전승은 권역별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 자료를 주 자료로 삼고, 기타 각종 기관이나 개인이 발행한 자료집을 보조 자료로 삼는다.<sup>2)</sup>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 자료는 구비문학 전공자나 민요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서 조사 채록한 1차 자료로서, 구연자나 구연상황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자료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제외하고 참고로만 다루기로 한다.

필자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중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간행된 총32권(경상북도 18권, 경상남도 14권)의 자료집과 『한국민요대전』에서 서사민요를 선별해내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577편(경북 333편, 경남 244편), 『한국민요대전』 경북편과 경남편에서는 58편(경북 45편, 경남 13편), 총 635편의 서사민요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필자의 정리에 의해 잠정적으로 잡혀진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서

2) 『한국구비문학대계』 7-1~7-18(경북), 8-1~8-14(경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경북편, (주)문화방송, 1994-1995.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는 ‘구비대계, 지역명, 자료번호’로, 『한국민요대전』 자료는 ‘민요대전, 지역명, 시디번호’로 표기한다.

사민요 자료 807편과 『한국민요대전』 172편, 총 979편 중 거의 64.9%에 해당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만 이는, 필자가 지금까지 정리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 소재 서사민요 자료가 전북 61편, 전남 162편, 충북 35편, 충남 54편인 것에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영남 지역 자료집이 경북 지역 18권, 경남 지역 14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조사 자료집을 낸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영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사민요를 활발하게 창작 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 영남 서사민요의 유형별 전승양상

필자는 서사민요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와 이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사건의 형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한 바 있다. 이는 우선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관계로 상위유형을 분류한 뒤, 이들 주인공과 상대인물이 일으키는 중심적인 사건으로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이 방법에 의하면 모든 서사민요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할 수 있다. 이 유형분류 방법에 의해 서사민요는 모두 14개 인물 관계에 총 6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서사민요 자료와 이번 연구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에서 추출한 서사민요 자료를 중심으로 영남 지역 서사민요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나타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별 각 편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3) 출처, 『한국 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47-75쪽. 이 책에서 분류한 64개 유형은 잠정적인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인 서사민요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형	북서부 비율	남부 비율	북동부 비율	영남 소계 비율	전북	전남	호남 소계 비율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16 7.66	10 3.91	9 5.29	35 5.51	1	8	9 4.04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자살하는 며느리	1 0.48	4 1.56	0 -	5 0.79	2	15	17 7.62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2 0.96	2 0.78	2 1.18	6 0.94	1	12	13 5.83
Ad 시집식구가 깨진그릇 물어내라자 항의하는 며느리	3 1.44	8 3.13	0 -	11 1.73	2	4	6 2.69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부른 며느리	0 -	1 0.39	0 -	1 0.16	2	1	3 1.35
Af 과일을 따먹다 시집식구에게 들킨 며느리	4 1.91	0 -	0 -	4 0.63	0	0	0 -
Ag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소송하자 항의하는 며느리	0 -	1 0.39	0 -	1 0.16	0	0	0 -
Ah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5 2.39	0 -	2 1.18	7 1.10	1	4	5 2.24
Ai 시누가 죽자 기뻐하는 며느리	0 -	0 -	0 -	0 -	0	0	0 -
Aj 방귀를 끼어 시집식구에게 쫓겨난 며느리	0 -	1 0.39	0 -	1 0.16	0	0	0 -
Ak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사촌동생	1 0.48	0 -	0 -	1 0.16	1	0	1 0.45

Ba 베 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42	20.1 0	22	8.59	36	21.1 8	100	15.7 5	7	5	12	5.38
Bb 남편이 기생첩과 놀며 모른체하자 자살하는 아내	0	-	0	-	0	-	0	-	0	1	1	0.45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진주낭군)	10	4.78	15	5.86	10	5.88	35	5.51	6	6	12	5.38
Bd 길에서 만난 남편이 몰라보자 한탄하는 아내	0	-	0	-	0	-	0	-	0	1	1	0.45
Be 남편에게 편지하나 오지 않자 한탄하는 아내	0	-	0	-	0	-	0	-	0	1	1	0.45
Bf 이별한 아내가 죽자 한탄하는 남편	0	-	0	-	0	-	0	-	0	0	0	-
Bg 집나갔던 아내가 붙잡자 뿌리치는 남편	1	0.48	1	0.39	0	-	2	0.31	0	0	0	-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타박네)	2	0.96	1	0.39	4	2.35	7	1.10	2	5	7	3.14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2	0.96	8	3.13	3	1.76	13	2.05	2	7	9	4.04
Cc 시집간 딸이 편지하자 한탄하는 친정식구	0	-	0	-	0	-	0	-	0	1	1	0.45
Cd 딸이 시집에서 쫓겨오자 반기지 않는 친정식구	0	-	0	-	0	-	0	-	0	1	1	0.45
Da 아버지의 재혼을 원망하는	6	2.87	3	1.17	2	1.18	11	1.73	0	0	0	-

자식												
Db 계모로 인해 죽은 자식	0	-	1	0.39	1	0.59	2	0.31	0	2	2	0.90
Dc 부모와 이별하고 전쟁에 나간 자식	1	0.48	2	0.78	0	-	3	0.47	1	3	4	1.79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16	7.66	29	11.33	17	10.00	62	9.76	1	3	4	1.79
Eb 오빠가 물에서 구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동생	9	4.31	4	1.56	2	1.18	15	2.36	2	4	6	2.69
Ec 오빠가 올케 댕기만 사오자 한탄하는 동생	0	-	0	-	0	-	0	-	0	1	1	0.45
Fa-1 삼촌식구가 구박받다 시집가나 신랑이 죽은 조카	0	-	4	1.56	1	0.59	5	0.79	0	0	0	-
Fa-2 삼촌식구 구박받다 장가가나 신부가 죽은 조카	1	0.48	1	0.39	0	-	2	0.31	0	0	0	-
Fb 삼촌식구 구박받다 시집가나 신랑이 죽은 꼬택각시	0	-	1	0.39	0	-	1	0.16	0	0	0	-
Ga 혼인을 기다리다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5	2.39	2	0.78	1	0.59	8	1.26	0	1	1	0.45
Gb 처녀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3	1.44	14	5.47	4	2.35	21	3.31	3	2	5	2.24
Gc 본처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7	3.35	0	-	1	0.59	8	1.26	0	0	0	-
Gd 혼인을 기다리다 신부가	0	-	8	3.13	1	0.59	9	1.42	1	0	1	0.45

죽자 한탄하는 신랑												
Ge 혼인날 신부가 애기를 낳자 돌아가는 신랑	2	0.96	2	0.78	2	1.18	6	0.94	2	8	10	4.48
Gf 혼인날 방해를 물리치고 첫날밤을 치르는 신랑	2	0.96	6	2.34	1	0.59	9	1.42	2	2	4	1.79
Gg 신랑이 성불구이자 중이 되는 신부	0	-	1	0.39	0	-	1	0.16	0	1	1	0.45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깨매주는 여자	1	0.48	1	0.39	3	1.76	5	0.79	2	9	11	4.93
Hb 외간남자와 정 통하다 남편에게 들킨 여자	0	-	0	-	4	2.35	4	0.63	0	0	0	-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7	3.35	11	4.30	4	2.35	22	3.46	1	5	6	2.69
Hd 중이 유혹하자 거절하는 여자	0	-	1	0.39	0	-	1	0.16	3	3	6	2.69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2	0.96	2	0.78	0	-	4	0.63	2	2	4	1.79
Hf 장사가 성기를 팔자 이를 사는 과부	0	-	0	-	0	-	0	-	0	0	0	-
Hg 장사가 자고간 뒤 그리워하는 과부	1	0.48	0	-	2	1.18	3	0.47	0	2	2	0.90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땡기노래)	10	4.78	15	5.86	8	4.71	33	5.20	4	7	11	4.93
Ib 일하는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6	2.87	11	4.30	0	-	17	2.68	1	8	9	4.04
Ic-1 처녀를	3	1.44	6	2.34	1	0.59	10	1.57	2	4	6	2.69



작사랑하다 죽는 총각												
Ic-2 사모하는 총각을 중이 되어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	0	-	3	1.17	0	-	3	0.47	0	0	0	-
Id 나물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	0	-	14	5.47	2	1.18	16	2.52	0	1	1	0.45
Ie 총각이 어머니를 통해 칭혼하자 받아들이는 처녀	1	0.48	0	-	1	0.59	2	0.31	0	0	0	-
If 담배를 키워 피우며 칭혼하는 총각	1	0.48	6	2.34	1	0.59	8	1.26	0	3	3	1.35
Ja 첩의 집에 찾아가는 본처	7	3.35	2	0.78	4	2.35	13	2.05	1	6	7	3.14
Jb 첩으로 인해 한탄하는 본처	3	1.44	0	-	1	0.59	4	0.63	0	0	0	-
Jc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0	-	0	-	0	-	0	-	0	2	2	0.90
Jd 본처가 죽자 기뻐하는 첩	0	-	1	0.39	0	-	1	0.16	0	0	0	-
Ka 자형에게 항의하는 처남	3	1.44	5	1.95	0	-	8	1.26	0	0	0	-
Kb 장인장모를 깔보는 사위	1	0.48	1	0.39	0	-	2	0.31	0	0	0	-
La 저승사자가 데리러오자 한탄하는 사람	3	1.44	4	1.56	1	0.59	8	1.26	0	3	3	1.35
Lb 메밀음식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9	4.31	1	0.39	10	5.88	20	3.15	0	2	2	0.90
Lc 나물반찬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1	0.48	3	1.17	2	1.18	6	0.94	0	0	0	-

Ma 자식이 없자 곤충을 자식으로 여긴 사람	3	1.44	0	-	3	1.76	6	0.94	0	0	0	-
Mb 쥐가 남긴 밤을 아이와 나눠먹는 사람	3	1.44	11	4.30	16	9.41	30	4.72	3	3	6	2.69
Mc 사람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	0	-	2	0.78	0	-	2	0.31	1	1	2	0.90
Md 포수에게 잡힌 노루 사슴	0	-	0	-	1	0.59	1	0.16	0	0	0	-
Na 장끼가 콩 주워 먹고 죽자 한탄하는 까투리	0	-	1	0.39	2	1.18	3	0.47	2	2	4	1.79
미분류	2	0.96	4	1.56	5	2.94	11	1.73			0	-
총계	20	100	25	100	170	100	635	100	61	162	223	100

(cf. <표>에서 북서부, 남부, 북동부는 필자가 이 논문의 3장에서 제시한 영남의 문화권역이고 숫자는 영남 지역 구비대계와 민요대전 소재 권역별, 유형별 자료 수를 말함. 전남, 전북의 숫자 역시 해당 지역의 구비대계와 민요대전 소재 자료 수를 말함. 비율은 권역별, 지역별로 조사된 서사민요 전체 자료 수에 대한 해당 유형 자료 수의 비율임.)

이 표를 바탕으로 영남 지역에서 20편 이상 조사된 서사민요 유형을 순서대로 들면 다음과 같다.

- Ba 베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베틀노래) 100편(15.75%)
-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62편(9.76%)
-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진주낭군) 35편(5.51%)
-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35편(5.51%)
-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당기노래) 33편(5.20%)
- Mb 쥐가 남긴 밤을 아이와 나눠 먹는 사람(달강달강) 30편(4.72%)
-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주머니노래) 22편(3.46%)
- Gb 처녀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이사원네 만말애기) 21편

(3.31%)

Lb 메밀 음식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메밀노래) 20편(3.15%)

이렇게 보면 영남 지역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서사민요는 Ba 베 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유형(속칭 <베틀노래>)으로 15.75%에 이른다. 시집살이노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유형이 가장 많이 불리리라는 일반적 예상이나 추정과는 다른 결과이다. Ba 유형이 많이 불리는 것은 영남 지역이 예로부터 길쌈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어서 길쌈을 하면서 이 유형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호남 지역은 Ba 유형이 5.38%에 그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영남 지역에서 Aa 유형보다 오히려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 유형(속칭 <쌍가락지>)이 많이 불리는 것도 영남 지역 서사민요 전승양상에 있어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는 영남 지역이 예로부터 양반 문화의 전통이 강해 시집살이를 다룬 서사민요를 부르기가 자유롭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서사민요가 부르던 전승 환경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영남 지역 여성들은 서사민요를 주로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배웠으며 친구들과 많이 불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보다는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유형이나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유형,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주머니노래) 유형, Gb 처녀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이사원네 맏딸애기) 유형과 같이 총각과 처녀에 관련된 노래가 많이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밖에도 필자가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볼 때 호남 지역에서는 전승되지 않거나 매우 드문데, 영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흔히 전승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Da 아버지의 재혼을 원망하는 자식 : 영남 1.73% / 호남 0%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지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 영남 9.76% / 호남 1.79%  
Fa 삼촌식구 구박받다 혼인하나 배우자가 죽은 조카 : 영남 1.26% / 호남 0%  
Gc 본처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 영남 1.26% / 호남 0%  
Hb 외간남자와 정 통하다 남편에게 들킨 여자(훗사나타령) : 영남 0.63% / 호남 0%  
Ic-2 사모하는 총각을 중이 되어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동국각시) : 영남 0.47% / 호남 0%  
Id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남도령 서처자) : 영남 2.52% / 호남 0.45%  
Ma 자식이 없자 곤충을 자식으로 여긴 사람 : 영남 0.94% / 호남 0%

이들 유형 중 Da 유형과 Gc 유형은 아버지나 남편이 재혼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내용이며, Hb 유형과 Id 유형은 외간남자와 여자 또는 총각과 처녀가 혼외정사를 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영남 지역이 호남 지역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데 비해 이들 유형은 매우 과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영남 지역 서사민요가 한편으로는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개방적인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호남 지역에는 비교적 많이 전승되나 영남 지역에는 드물게 전승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자살하는 며느리 : 영남 0.79% / 호남 7.62%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 영남 0.94% / 호남 5.83%  
Ad 시집식구가 깨진 그릇 물어내라자 항의하는 며느리(양동가마) : 영남 1.73% / 호남 2.69%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꿩노래) : 영남 0.16% / 호남 1.35%  
Ah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 영남 1.10% / 호남 2.24%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타박네) : 영남 1.10% / 호남 3.14%

-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친정부고) : 영남 2.05% / 호남 4.04%  
 Ge 혼인날 신부가 애기를 낳자 돌아가는 신랑(신부부정) : 영남 0.94% / 호남 4.48%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께매주는 여자(께자노래) : 영남 0.79% / 호남 4.93%  
 Hd 중이 유혹하자 거절하는 여자(중타령) : 영남 0.16% / 호남 2.69%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제석님네 따님애기) : 영남 0.53% / 호남 2.79%

이들 유형으로 미루어 영남 지역은 호남 지역에 비해 대체로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들의 전승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집살이 관련 화소도 호남 지역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호남 지역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의 경우는 며느리가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거나 시집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유형들이 영남이나 호남의 상대 지역에는 거의 전승되지 않고 그중 한 지역에만 활발하게 전승된다고 한다면, 각기 영남과 호남의 고유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남 지역 서사민요와 호남 지역 서사민요를 구별 짓는 경계가 되는 것으로서, 양 지역 서사민요의 특질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서사민요에서도 설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유형과 특정 지역에만 전승되는 지역 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면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자살하는 며느리 유형이나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며 모른 체하자 자살하는 아내(진주낭군) 유형과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유형으로,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유형, Gc 본처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등은 영남의 지역 유형, Ad 시집식구가 깨진 그릇 물어내라자 항의하는 며느리나 Ge 혼인날 신부가 애기를 낳자 돌아가는 신랑,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유형 등은 호남의 지역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비교

를 비롯한 전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밝혀나가려고 한다.

### 3. 영남 서사민요의 권역별 전승양상

영남 지역의 지세를 보면 한반도의 등뼈인 태백산맥이 동해 쪽으로 내려오고, 태백산을 기점으로 소백산맥이 서남으로 뻗어서 지리산에 이르러 남해로 빠져들으로써 자연스럽게 충청, 호남 지역과 경계를 이룬다. 영남 지역 내에서는 다시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이 서남쪽으로 흘러 이를 사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행정과 문화가 경계 지워졌다. 조선 시대에는 이 강을 경계로 영남을 좌도와 우도로 나누기도 했다.<sup>4)</sup> 이에 여기에서는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영남 지역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sup>5)</sup> 이는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이 낙동강 이서 지역인 경상우도와 낙동강 이동 지역인 경상좌도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 간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면서도 영남의 북부와 남부는 오랫동안 행정구역상

4) 『한국의 발견/한반도와 한국 사람: 경상남도』, 뿌리깊은 나무, 1992, 31-32쪽.

5) 권오경은 영남 민요의 권역을 지리적 조건, 역사 정치적 조건, 언어적 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1) 경북 서부권 (2) 경남 서부권 (3) 경남 남해권 - 영남 우도 (4) 경북 북부권 (5) 경북 중부권 (6) 경남·북 동해권 - 영남 좌도(권오경, 「영남 민요의 전승과 특질」,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222쪽). 그러나 필자가 크게 세 권역으로 구분한 데에는 이 논문의 최종 목적이 호남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영남 서사민요의 권역을 이와 같이 세 권역으로 나누어볼 때 호남 서사민요와의 소통 양상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남 서남부권의 경우, 호남 지역과 연계해 있어서 호남 서사민요와의 소통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는 데 비해, 북동부권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과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서남부권에 비해서는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6) 성주(星州)·선산(善山)·금산(金山)·개령(開寧)·지례(知禮)·고령(高靈)·문경(聞慶)·함창(咸昌) 등(이상은 尙州鎭에 속함)과 합천(陝川)·초계(草溪)·함양(咸陽)·곤양(昆陽)·남해(南海)·거창(居昌)·사천(泗川)·삼가(三嘉)·의령(宜寧)·하동(河東)·산음(山陰)·안음(安

으로 경계가 지어져 그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영남의 문화 권역은 크게 영남 북서부권, 영남 북동부권, 영남 남부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남 북서부권과 영남 남부권은 대체로 예전 경상우도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호남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지역인 반면, 영남 북동부권은 대체로 경상좌도 지역으로서 호남과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 세 권역은 현재의 행정 구역 명칭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영남 북서부권: 문경, 상주, 구미(선산), 김천, 성주, 고령,
- (2) 영남 북동부권: 영주, 봉화, 울진, 예천, 안동, 영양, 청송, 영덕, 의성, 군위, 영천, 칠곡, 대구(경산), 청도, 경주, 포항
- (3) 영남 남부권: 거창, 함양, 산청, 함천, 의령, 진주, 하동, 사천, 남해, 고성, 통영, 거제, 함안, 창원, 진해(마산), 김해, 창원, 밀양, 양산, 울산(울주), 부산

영남 지역에서 조사된 서사민요 자료를 권역별, 시군 별, 자료집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陰)단성(丹城) 등(이상은 晉州鎭에 속함), 그리고 창원(昌原)·함안(咸安)·거제(巨濟)·고성(固城)·칠원(漆原)·진해(鎭海)·웅천(熊川) 등(이상은 金海鎭에 속함)의 28군을 우도라고 하였으며, 울산(蔚山)·양산(梁山)·영천(永川)·흥해(興海)·동래(東萊)·청하(清河)·영일(迎日)·장기(長庚)·기장(機張)·언양(彦陽) 등(이상은 慶州鎭에 속함)과, 영해(寧海)·청송(靑松)·예천(醴泉)·영천(榮川)·풍기(豊基)·순흥(順興)·의성(義城)·영덕(盈德)·봉화(奉化)·진보(眞寶)·군위(軍威)·비안(比安)·예안(禮安)·영양(英陽)·용궁(龍宮) 등(이상은 安東鎭에 속함), 그리고 밀양(密陽)·청도(淸道)·경산(慶山)·하양(河陽)·인동(仁同)·현풍(玄風)·칠곡(漆谷)·자인(慈仁)·신녕(新寧)·의흥(義興)·영산(靈山)·창녕(昌寧) 등(이상은 大邱鎭에 속함)의 37군을 좌도라고 하였다. 이 두 지역은 문화 역시 서로 간에 변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극에 있어서 낙동강 동쪽인 경상좌도 지역에서는 주로 야류가, 낙동강 서쪽인 경상우도 지역에서는 주로 오광대가 발전했다든지, 농악에 있어서도 좌도 농악과 우도 농악이 구별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민요에 있어서도 경상좌도는 주로 메나리토리로 부르는 데 비해, 경상우도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 토리가 섞여 있다든지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 7) 자료 번호 옆 ( )안의 알파벳은 필자가 부여한 서사민요 유형 기호이다. 줄져, 앞의 책, 47-75쪽 참조. 필자는 우선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작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엑셀에 입력함으로써 서사민요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였다. 분석 틀은 분류기호, 유형, 하위유형, 구연자, 성별, 나

권역/ 시군	구비대계	민요 대전	계
영 남 북 서 부 권  성 주 군	초전면30(Aa), 벽진면40(Aa), 벽진면83(Aa+ Af), 성주읍3(Aa+ Af), 대가면19(Aa), 대가면20(Aa), 대가면82(Aa), 대가면212(Aa), 대가면222(Aa), 벽진면18(Af), 대가면11(Af), 대가면84(Ac), 월항면52(Ac), 초전면6(Ad), 초전면39(Ad), 월항면34(Ab), 대가면238(Af), 대가면97(Ah), 대가면123(Ah), 대가면136(Ah), 벽진면53(Ah), 성주읍6(Ba), 성주읍8(Ba), 월항면3(Ba), 월항면10(Ba), 월항면20(Ba), 월항면38(Ba), 초전면8(Ba), 초전면23(Ba), 초전면36(Ba), 벽진면39(Ba), 대가면10(Ba), 대가면124(Ba), 대가면134(Ba), 대가면137(Ba), 대가면217(Ba), 대가면219(Ba), 대가면227(Ba), 초전면3(Bc), 초전면9(Bc), 초전면32(Bc), 초전면44(Bc), 대가면13(Bc), 대가면81(Bc), 벽진면72(Cb), 성주읍15(Da), 성주읍16(Da), 대가면131(Da), 초전면43(Da), 월항면4(Da), 대가면221(Dc), 성주읍7(Ea), 대가면2(Ea), 대가면38(Ea), 대가면116(Ea), 대가면213(Ea), 월항면51(Ea), 벽진면8(Ea), 대가면21(Eb), 대가면22(Eb), 대가면29(Eb), 대가면214(Eb), 월항면17(Eb), 월항면18(Eb), 초전면5(Eb), 초전면35(Eb), 벽진면87(Eb), 월항면19(Ga), 초전면27(Ga), 벽진면19(Ga), 벽진면41(Ga), 벽진면67(Ga), 대가면224(Gc), 초전면26(Gc), 대가면80(Ge), 대가면223(Ge), 대가면36(Gf), 초전면28(Gf), 대가면220(Ha), 대가면44(Hc), 대가면105(Hc), 대가면184(Hc), 초전면33(Hc), 월항면37(Ia), 초전면2(Ia), 대가면25(Ia), 대가면75(Ia), 대가면95(Ia), 대가면120(Ia), 대가면127(Ia), 대가면144(Ia), 대가면35(Ib), 대가면78(Ib), 대가면117(Ib), 대가면202(Ib), 대가면236(Ib), 벽진면10(Ic-1), 대가면197(Ie), 대가면91(Ja), 대가면128(Ja), 벽	7-2 5(B g), 7-3 7(A h)	116

이, 조사지, 조사일, 조사자, 수록 문헌, 주요 모티프, 특기사항, 구연상황으로 나누었다. 이 작업은 서사민요의 유형, 서사민요 구연자의 성별, 나이, 서사민요의 전승 지역, 서사민요의 주요 모티프, 서사민요의 기능 등을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영남 지역 서사민요를 조건에 따라 편리하게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으므로, 서사민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차후 다른 지역의 서사민요를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 서사민요 역시 이 틀에 맞추어 입력함으로써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과 경기 지역, 영남 지역과 강원 지역, 호남 지역과 경기 지역, 호남 지역과 강원 지역 등 다양한 지역별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서사민요의 실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학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긴요한 작업이면서 차후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면22(Ja), 월항면22(Jb), 대가면23(Jb), 대가면125(Jb), 대가면100(Ka), 대가면164(Ka), 초전면34(Lb), 벽진면26(Lb), 벽진면84(Lb), 대가면12(Lb), 대가면185(Lb+Hc), 벽진면78(Lc), 대가면188(Mb), 대가면205(Mb) 114		
	상주군	낙동면25(Aa), 사벌면21(Aa), 청리면15(Aa), 청리면13(Ak), 공검면2(Ba), 공검면3(Ba), 공검면7(Ba), 낙동면18(Ba), 낙동면19(Ba), 낙동면24(Ba), 사벌면14(Ba), 사벌면25(Ba), 청리면2(Ba), 화서면1(Ba), 화서면4(Ba), 은척면4(Ba), 공검면27(Bc), 상주읍22(Ea), 낙동면8(Ea), 사벌면23(Ea), 청리면12(Ea), 화서면3(Ea), 낙동면1(Fa-2), 낙동면6(Gb), 낙동면5(Gc), 사벌면9(Gc), 사벌면16(Gc), 청리면5(Gc), 낙동면10(Hc), 낙동면7(He), 화서면5(He), 청리면17(Hg), 낙동면2(Ia), 낙동면3(Ic-1), 사벌면20(Ic-1), 공검면26(If), 낙동면4(Ja), 화서면2(Ja), 상주읍(La), 청리면22(La), 사벌면8(Lb), 청리면9(Lb), 청리면16(Ma), 청리면8(Mb), 낙동면11(기타) 45	7-9 (Ca) , 7-3 6(C a), 7-4 (Cb) , 7-1 2(Ja )	49
	구미시 (선산군)	무을면6(Aa), 장천면18(Aa), 고아면31(Aa), 무을면7(Af), 장천면3(Ba), 장천면17(Ba), 무을면1(Ba), 무을면16(Ba), 고아면2(Ba), 고아면27(Ba), 고아면29(Ba), 옥성면3(Ba), 옥성면4(Ba), 옥성면16(Ba), 선산읍15(Ba), 무을면14(Bc), 고아면6(Bc), 고아면30(Bc), 장천면8(Da), 고아면14(Ea), 고아면20(Ea), 장천면2(Ea), 고아면32(Gb), 장천면6(Gb), 고아면34(Gc), 고아면6(Hc), 고아면40(Hc), 고아면8(Ia), 고아면5(Ib), 고아면42(Ja), 무을면15(Ka), 고아면33(Kb), 무을면11(La), 장천면19(Lb), 고아면39(Lb), 고아면36(Ma), 무을면8(기타) 37	3-2 5(A d)	38
	김천시		5-2 (Ba)	1
	문경시		5-1 7(A a), 5-1 8(B a)	2
	고령군		3-1 1(E a), 3-1 2(M a)	2
영남 북	예천군	풍양면34(Aa), 풍양면33(Ac), 풍양면38(Ac), 보문면3(Ba), 용문면20(Ba), 풍양면26(Ba), 풍양면27(Ba), 개포면21(Ba), 호명면8(Ba), 호명면11(Ba), 용문면9(Bc), 용문면28(Bc), 풍양면15(Bc), 용문면11(Ea), 용문면18(Hb), 풍양	11- 3(B a), 10-	35

동부권		면23(Ia), 개포면24(Ie), 호명면13(Ja), 풍양면32(Jb), 풍양면17(Lb), 풍양면36(Lb), 풍양면37(Lb), 호명면36(Lb), 호명면21(Mb), 풍양면1(Mb), 풍양면2(Mb), 개포면23(Mb), 호명면1(Mb), 예천읍4(기타), 용문면23(기타) 30	20(Ge), 11-4(Ma), 10-21(Mb), 11-10(Mb)	
	안동시	일직면4(Aa), 서후면18(Aa), 북후면1(Ah), 임동면9(Ba), 서후면14(Ba), 임하면5(Ba), 임하면17(Ba), 일직면5(Ba), 일직면11(Ba), 일직면31(Ba), 임하면4(Da), 임하면7(Db), 임하면3(Ea), 서후면10(Ha), 서후면20(Hc), 일직면8(Ia), 서후면19(Ia), 임하면9(Ic-1), 서후면15(If), 임하면6(Ja), 일직면37(Lb), 서후면13(Na) 22		22
	봉화군	춘양면8(Ba), 소천면12(Cb), 소천면11(Ea), 소천면5(Hb), 봉화읍1(Mb), 춘양면6(Mb) 6		6
	군위군	의흥면20(Aa), 산성면13(Ah), 소보면1(Ba), 산성면12(Ba), 군위읍23(Ba), 의흥면14(Ba), 의흥면7(Bc), 산성면16(Ca), 군위읍7(Da), 군위읍6(Ea), 산성면15(Ea), 소보면6(Ea), 의흥면6(Ea), 군위읍18(Ge), 군위읍5(Ha), 군위읍13(Hc), 소보면3(Hc), 산성면11(Ja), 의흥면23(Lb), 산성면7(Md) 20	4-22(Ca), 4-21(Gb)	22
	영덕군	강구면28(Ba), 달산면10(Ba), 강구면26(Bc), 강구면27(Cb), 달산면12(Ea), 강구면35(Ea), 강구면29(Gb), 영해면3(Hc), 강구면34(Lb), 달산면14(Mb) 10	8-30(Gb), 8-26(Ha), 8-28(Hg), 8-31(Lb)	14
	대구시	대구시11(Ba), 대구시29(Ba), 대구시45(Ba), 대구시57(Ba), 대구시33(Bc), 대구시25(Ea), 대구시39(Ga), 대구시17(Gd), 대구시38(Gf), 대구시47(Hb), 대구시28(Ia), 대구시32(Ia), 대구시42(Ia), 대구시8(Ma), 대구시27(기타), 대구시54(기타), 유가면4(Ba), 유가면1(Bc), 하빈면16(Bc), 유가면13(Fa-1), 화원면7(Mb), 화원면9(Mb) 22		22
	경	외동면9(Aa), 외동면16(Aa), 현곡면27(Ba), 외동면3(Ba),	2-3	28

주시	외동면4(Ba), 외동면17(Ba), 외동면18(Ba), 외동면62(Ba), 안강읍4(Ba), 현곡면24(Bc), 외동면11(Bc), 현곡면26(Ea), 외동면1(Ea), 외동면2(Ea), 안강읍5(Ea), 현곡면12(Eb), 안강읍8(Ha), 외동면40(Hg), 현곡면25(Ia), 외동면14(Ia), 안강읍3(Id), 외동면8(Lb), 안강읍7(Lb), 외동면39(Ma), 외동면60(Mb), 안강읍9(Mb), 외동면12(기타) 27	4(Aa)	
경산시		2-1 9(Aa), 15- 77(Ea)	2
영양군		9-7 (Lc)	1
영주시			0
영천시		10- 14(Ba) 15- 77(Ea)	2
울릉군		11- 17(Lc)	1
울진군		11- 24(Cb) 11- 26(Gc) 11- 28(La)	3
의성군		12- 14(Eb)	1
청도군		13- 10(Ba), 13- 8(Id)	2

	청송군	13-16(Gb), 13-17(Mb)	2	
	칠곡군	14-7(Aa), 14-10(Ca), 14-3(Ja), 14-12(Na)	4	
	포항시	14-36(Ca), 14-32(Ea), 14-25(Mb)	3	
영남남부권	의령군	유곡면5(Ab), 의령읍35(Ac), 부림면8(Ad+ Aa), 정곡면29(Ad+ Aa), 봉수면23(Ae), 지정면2(Ba), 칠곡면10(Ba), 유곡면3(Ba), 지정면36(Ba), 봉수면5(Ba), 봉수면12(Ba), 정곡면15(Bc), 정곡면28(Bc), 봉수면22(Bc), 정곡면12(Cb), 정곡면39(Cb), 지정면19(Cb), 봉수면20(Cb+ Aa), 지정면20(Dc), 정곡면56(Dc), 의령읍31(Ea), 칠곡면2(Ea), 유곡면4(Ea), 정곡면14(Ea), 지정면25(Ea), 봉수면11(Ea), 봉수면34(Eb), 지정면29(Gb), 봉수면37(Gb), 의령읍23(Gd), 지정면23(Gd), 칠곡면8(Ge), 정곡면31(Gf), 정곡면53(Gf), 지정면10(Gf), 칠곡면9(Hc), 지정면27(Hc), 봉수면7(Hc), 정곡면39(He), 의령읍32(Ia), 칠곡면13(Ia), 정곡면17(Ia), 지정면17(Ia), 의령읍20(Ib), 지정면4(Ib), 칠곡면7(Ic-1), 정곡면52(Ic-1), 지정면21(Ic-1), 지정면22(Ic-1), 칠곡면6(Ic-2), 칠곡면11(Id), 정곡면21(Id), 지정면14(Id), 봉수면6(Ka), 의령읍40(Lb), 지정면26(Lc+ Ac), 지정면31(Mb), 부림면5(Mb), 정곡면35(Mb), 지정면5(Mc) 60	5-2 3(Ib) . 6-4 (Id), 6-6 (Mc) )	63
	거창	거창읍20(Aa), 웅양면30(Aa), 북상면1(Aa), 마리면37(Aa), 가조면20(Ac), 가조면11(Ad+ Aa), 마리면30(Ad+ Aa), 가		51

군	조면17(Af), 마리면36(Aj), 위천면6(Ba), 남하면4(Ba), 마리면13(Ba), 거창읍60(Bc), 웅양면42(Bg), 거창읍3(Ea), 웅양면28(Ea), 가조면21(Ea), 북상면3(Ea), 마리면29(Ea), 웅양면18(Eb), 웅양면25(Gb), 위천면2(Gd), 마리면14(Gd), 위천면3(Fa-1), 마리면28(Ga), 마리면31(Gg), 북상면5(He), 웅양면12(Ia), 위천면1(Ia), 마리면12(Ia), 마리면19(Ia), 거창읍28(Ib), 웅양면29(Ib), 북상면16(Ib), 북상면30(Ib), 위천면4(Ib), 마리면32(Ib), 거창읍2(Ic-1), 마리면27(Ic-2), 마리면33(Ic-2), 거창읍16(Id), 거창읍52(Id), 웅양면24(Id), 웅양면35(Id), 북상면24(Id), 거창읍22(If), 남하면6(If), 거창읍14(Ka), 북상면13(Ka), 웅양면9(Ka), 웅양면19(Kb) 51		
진주시 (진양군)	사봉면19(Aa), 금곡면4(Ad), 명석면4(Ad), 미천면12(Ba), 대곡면4(Ba), 사봉면23(Bc), 금곡면9(Bc), 사봉면13(Ea), 일반성면8(Eb), 명석면19(Fa-1), 미천면20(1)(Ga), 사봉면17(Gf), 미천면20(2)(Ha), 미천면21(Ia), 미천면20(3)(Ic-1), 일반성면2141(Ka), 대곡면7(Mb) 17		17
하동군	옥종면7(Ad), 옥종면2(Ba), 악양면5(Bc), 진교면5(Bc), 옥종면8(Ea), 옥종면13(Gd), 진교면1(Ia), 진교면6(Ia), 진교면15(Jd), 악양면10(Mb), 옥종면10(기타) 11		11
김해시	진영읍18(Ba), 상동면4(Da), 진영읍7(Da), 상동면18(Ea), 상동면8(Gb), 상동면14(Gb), 진영읍3(1)(Gb), 진영읍8(Gb), 진영읍3(2)(Gf), 이북면5(Hc), 진영읍13(Ib), 김해시10(기타) 12		12
거제군	신현읍3(Af), 장승포읍14(Af), 신현읍17(Cb), 일운면10(Cb), 사등면32(Db), 신현읍2(Ea), 일운면19(Ea), 사등면12(Eb), 사등면26(Fa-1), 연초면11(Fa-2), 거제면6(Fb), 신현읍4(Gb), 하청면7(Gb), 하청면26(Ja), 사등면7(Gd), 거제면2(Hc), 사등면5(Ia), 거제면13(Ib), 둔덕면2(If), 사등면30(Ja) 20	1-1 1(H c)	21
밀양군	상남면12(Aa), 무안면17(Aa), 삼랑진읍16(Aa), 무안면12(Ba), 상동면19(Ba), 상동면1(Bc), 상동면26(Bc), 무안면19(Bc), 산내면13(Bc), 삼랑진읍17(Da), 상남면13(Ea), 무안면10(Ea), 삼랑진읍8(Ea), 산내면28(Ea), 산내면23(Gb), 삼랑진읍13(Gd), 산내면7(Hc), 상동면10(Ia), 산내면2(Ia), 삼랑진읍10(Id), 상동면8(1)(Id), 산내면32(La), 상동면8(2)(La), 밀양읍27(Mb), 상남면10(Mb), 삼랑진읍19(Mb), 밀양읍13(기타) 27		27
울산시 (울주군)	강동면10(Aa), 울산시24(Ba), 울산시25(Ba), 강동면16(Ba), 언양면17(Ba), 온양면12(Ba), 두동면1(Ba), 상북면1(Ba), 온양면1(Bc), 두동면5(Bc), 두동면2(Ca), 언양면3(Cb), 울산시21(Ea), 강동면4(Ea), 강동면19(Ea), 언양면6(Ea), 언양면23(Ea), 청량면1(Ea), 온양면16(Ea), 상북면5(Ea), 온양면2((Fa-1+ Aa), 두동면9(Gb), 상북면2(Gb),		46

	언양면1(Gb), 온양면21(Gb), 온양면22(Gd), 언양면26(Ge), 언양면7(Gf), 강동면8(Hc), 강동면20(Hc), 언양면22(Hc), 온양면17(Hd), 상북면6(Ia), 울산시11(Id), 강동면27(Id), 언양면14(Id), 울산시12(If), 언양면12(If), 언양면2(La), 상북면7(La), 두동면3(Lc+ Ac), 울산시7(Mb), 청량면3(Mb), 온양면9(Mb), 온양면5(Na), 언양면16(기타) 46		
고성군			0
남해군		3-2 (2) Aa 3-2 (1) Ad	2
사천시			0
산청군		5-5 (Lc)	1
양산군			0
창녕군			0
창원시			0
통영시		7-7 (Ag )	1
함안군			0
함양군		8-1 0(C b), 8-1 1(B c), 8-8 (Ib)	3
합천		8-1 6(E)	2

	군		a), 8-1 9(H c+ Ha)	
	부 산 시			0
총계	577		58	635

영남 지역에서 조사된 서사민요의 수를 살펴보면 총 635편 중 북서부권이 208편, 남부권이 257편, 북동부권이 170편으로, 북동부권에 비해 북서부권과 남부권에서 많은 각편이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 보아도 서사민요가 가장 많이 조사된 지역은 성주군으로 116편, 다음으로 의령군 63편, 거창군 51편, 상주군 49편, 울산시(울주군) 46편, 구미시(선산군) 38편의 순으로 대부분 영남의 북서부권과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서사민요 전승이 영남의 북동 지역보다는 서·남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남의 북서부권과 남부권은 북동부권에 비해 호남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양반문화의 전통이 강해, 풍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도(남부권)에로의 혼인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하도로 내려갈수록 소위 ‘큰 양반’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sup>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이 서사민요의 전승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영남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을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3.1 영남 북서부권

영남 북서부권은 경북의 상주와 성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의 북부이자

8)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9, 160쪽.

낙동강 이서 지역이다. 서사민요가 구비대계에서 196편, 민요대전에서 12편, 총 208편 조사되었다. 이는 영남 서사민요 중 32.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남부권 40.5%보다는 적고 북동부권 26.8%보다는 많다. 북서부권에서 10편 이상 조사된 유형을 차례대로 들면 Ba(베들노래) 42편(20.2%), Aa(중되는 며느리) 16편(7.7%), Ea(쌍가락지) 16편(7.7%), Ia(댕기노래) 10편(4.8%), Bc(진주낭군) 10편(4.8%) 등이다. Ba(베들노래) 유형이 많이 전승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여성들이 예로부터 길쌈을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이 중 Ba, Bc, Ea, Ia 유형은 남부권과 북동부권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이므로 제외한다고 한다면, 북서부권의 특징적인 유형으로는 Aa 유형을 꼽을 수 있다.

Aa 유형은 영남 지역에서 모두 35편이 조사되었는데, 그중 16편이 북서부권에서 조사되었다. 이는 북서부권을 Aa 유형의 중심 전승 지역으로 꼽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0)</sup> 북서부권에서는 이 유형 외에도 Af, Ag, Ah 등 시집살이와 관련된 유형이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전승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북서부권이 북동부권과 함께 길쌈 작업으로 인해 긴 서사민요를 많이 부르면서도 북동부권에 비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양반문화적 억압이 적었던 데다가 이들 유형이 많이 전승되던 호남 지역과의 교류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영남의 북동부권이나 남부권에는 드문데, 북서부권에는 많이 전승되는 유형으로는 Af 과일을 따먹다 시집식구에게 들킨 며느리, Ga 혼인을 기다리다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Gc 본처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난 여자(제석님때 따님애기) 유형 등

9) 오늘날에도 경상북도의 명산물로 일컬어지는 안동의 안동포, 상주의 명주, 의성의 무명배, 달성의 비단과 생초 들은 1700년대로부터 이름난 이 지방의 가내 공업 제품이었다. 1900년대에 오면 상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의 누에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44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의 발전/한반도와 한국 사람: 경상북도』, 뿌리깊은 나무, 1992, 50-54쪽.)

10) 권오경은 영남 민요의 전승과 특질을 살펴보면서 “밭매는 소리의 전승분포를 보면, 상주, 선산, 성주에서 출가형이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권오경, 『영남 민요의 전승과 특질』,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225-226쪽.)



이 있다. 반대로 북동부권이나 남부권에는 많이 전승되는데, 북서부권에는 드문 유형으로는 Fa-1 삼촌식구 구박받다 시집가나 신랑이 죽은 조카 유형, Gd 혼인을 기다리다 신부가 죽자 한탄하는 신랑 유형, Hb 외간남자와 정 통하다 남편에게 들킨 여자 유형, Ic-2 사모하는 총각을 중이 되어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동국각시) 유형, Id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남도령 서처자 노래) 유형 등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북서부권에서는 Aa 유형 외에도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유형과 같이 중과 관련된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북서부권과 호남 지역 간에 서사민요 유형의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He 유형은 서사무가 <당금애기(제석본풀이)>가 세속화한 것으로서 호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북동부권에서는 한 편도 조사되지 않았고 호남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북서부권과 남부권에 서만 조사되었다.<sup>11)</sup>

한편 혼인과 관련된 유형에서 북서부권에서는 Ga 신랑이 죽는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면 남부권이나 북동부권에서는 Gd 신부가 죽는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북서부권에서 Gc 본처의 저주로 신랑이 죽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남부권에서는 Gb 처녀의 저주로 신랑이 죽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다. 이는 북서부권의 서사민요가 주로 시집살이하는 여자에게 초점이 주어 있다면 남부권의 서사민요는

11) 류경자는 서사무가 <당금애기>가 “전라도 지역에서는 세속살림을 차리고 끝을 맺는 등 아예 신직의 부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체로 세속화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애정묘사와 골계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당금애기>의 서사를 바탕으로 하여 민요로 불리던 <중노래>는 전파되는 과정 중에 무가 <당금애기>의 서사는 더욱 약화되고, 오히려 흥미를 위주로 하는 중과 딸애기의 애정행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변이형의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변이형의 <중노래>만이 불린 남해군의 경우는 인접해 있는 전라도 지역의 민요가 전파되어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류경자, 「무가 <당금애기>와 민요 ‘중노래-만딸애기’류의 교섭양상과 변이」, 『한국민요학』 23, 한국민요학회, 2008, 331-339쪽.)

주로 혼인 전 여자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남 북서부권 서사민요는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집 식구에 의해 며느리가 고난을 받는 유형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는 혼인 관련 서사민요에서도 신랑이 죽음으로써 신부의 고난이 강조되고 있고, 신랑 저주 관련 서사민요에서도 처녀가 아닌 본처가 저주함으로써 아내를 두고 남편이 후실 장가를 가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 3.2 영남 북동부권

영남 북동부권은 안동, 대구, 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의 북부이자 낙동강 이동 지역이다. 서사민요가 구비대계에서 137편, 민요대전에서 33편, 총 170편 조사되었다. 이는 영남 서사민요 중 26.8%에 해당되는 것으로, 북서부권 32.8%, 남부권 40.5%에 비해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서사민요는 전통적으로 양반 지역이라 불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권이 다른 지역보다 전승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영남 북동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교 중심의 양반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더 깊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안동시는 예로부터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유교식 예법이 살아있어서 민요에서도 그 흔적을 강하게 찾을 수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영남 북동부권은 평민 여성들의 문학이라 할 수 있는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기에는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적합하지 못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향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모여 일을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양반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모여 일을 하는 것도 드물었거니와 이들이 모여 민요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12) 『한국민요대전』 경북편, (주)문화방송, 1995, 375쪽.

영남 북동부권에서 많이 조사된 유형을 차례대로 들면 Ba 베 짜며 가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36편 (21.18%),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17편(10.00%), Mb 쥐가 남긴 밤을 아이와 나뉘먹는 사람(달강달강) 16편 (9.41%),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진주낭군) 10편 5.88%, Lb 메밀음식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메밀노래) 10편 (5.88%),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9편(5.29%),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맹기노래) 8편(4.71%) 등이다.

Ba 유형은 영남 북부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전승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북동부권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유형이다. 북서부권과 마찬가지로 북동부권 역시 안동, 대구 등을 중심으로 길쌈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유형이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북동부권에서 많이 조사된 유형 중 북서부권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많이 조사된 Ba, Bc, Ea, Ia 유형을 제외한다면 북동부권의 특징적인 유형으로는 Mb 유형과 Lb 유형을 꼽을 수 있다. Mb 유형은 아이를 어르면서 밤을 삶아 먹는 과정을 읊는 내용이고, Lb 유형은 메밀을 길러 메밀국수를 삶아 먹는 과정을 읊는 내용이다. 둘다 서사성보다는 교술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유형이다.<sup>13)</sup> 이는 Ba 유형과 함께 북동부권에서는 살림살이에 관련된 유형이 많이 전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주인공과 상대인물 간의 갈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유형으로서 북동부권 서사민요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남 북서부권에서는 Aa 유형을 비롯한 시집살이 관련 유형이 많이 조사된 데 비해, 북동부권에서는 이들 유형이 북서부권이나 남부권에

13) 서사민요는 서사 장르에 속하면서 창자에 의해 구연(실현화)되면서, 그 부차적 속성에 따라 전형적, 서정적, 극적, 교술적 성격을 띠게 된다. 교술적 성격은 서사민요의 작품외적 자아가 인물의 목소리에 의해 사건을 전개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사건의 대부분을 전개하는 경우 나타난다. 대표적 유형이 Ba 베짜며 가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Lb 메밀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Mb 쥐가 남긴 밤을 아이와 나뉘먹는 사람 유형 등이다. 줄지, 앞의 책, 27-47쪽)

비해 비교적 적게 전승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북동부권에서는 북서부권에서 많이 전승되고 있는 Ab, Af, Ag, Ah 유형이 아예 조사되지 않았거나 드물게 조사되었다. 이는 영남 북동부권이 시집살이노래의 전승이 자유롭지 않거나 활발하지 않았던 사정을 보여준다. 대신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은 Ba 유형으로 이는 배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유형으로 되어 있어 시집살이와 관계없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영남 북동부권에 시집살이 관련 유형을 비롯한 서사민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조사되지 않은 데에는 북동부권이 시집살이 유형을 부르기엔 그리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14)</sup>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은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가사가 활발하게 창작, 전승되던 지역으로서 가사의 향유가 서사민요의 전승에 어느 정도 저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즉 이 지역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에는 서민 부녀자들도 신분적 상승을 위해 가사를 향유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창작 및 향유자 층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곧 양반 여성들에 의해 창작 향유되던 가사가 일반 서민 부녀자들에게도 정서적 신분 상승의 도구로서 민요보다 가사를 향유하려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가사가 널리 분포된 영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요의 발굴이 힘들며, 민요의 발굴이 용이한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사의 발굴이 힘들다고 한다. 곧 민요와 가사의 분포가 상보적인 분포

14) 권오경은 영남민요의 특질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발매는소리는 ‘불같이 더운 날’로 사설을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다. 예천, 봉화, 군위는 출가하여 중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안동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데서 그치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권오경, 앞의 논문, 『우리말글』 25, 232쪽)

15) 권영철에 의하면 규방가사는 경북 지방을 성주문화권, 안동문화권, 경주문화권으로 나누어 볼 때 안동문화권에서 77%이상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이어서 양반 부녀자들이 충충시하에서 시조나 민요 등 다른 음악을 즐기지 어려웠기 때문에 가사문화가 발달했다고 보았다.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89쪽; 성기린, 「울격과 음악적 특성에 의한 장편 가사의 갈래 규정 연구」, 『한국음악연구』 28집, 한국음악학회, 2000, 270-271쪽.)

(complementary distribution) 를 보이는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영남 북동부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사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지 않는 점과 시집살이 관련 유형보다는 Ba 베 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나 Lb 메밀 음식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와 같이 장편으로 된 교술적인 유형을 많이 부르는 것도 이들 지역에서 향유되는 가사의 영향을 어느 정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3 영남 남부권

영남 남부권은 진주, 거제 등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남에 위치하면서 남해안에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서사민요가 구비대계에서 244편, 민요대전에서 13편, 총 257편 조사되었다. 이는 영남 서사민요 중 40.5%에 해당되는 것으로, 북서부권 32.8%, 북동부권 26.8%에 비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영남 남부권이 북부의 북서부권이나 북동부권에 비해 여성들이 서사민요를 부르기에 훨씬 자유로운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서사민요는 평민 여성들에 의해 주로 전승되는 데, 영남 남부권은 북서부권이나 북동부권에 비해 양반 문화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전승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영남 남부권은 호남 지역과 육로 또는 해로로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던 곳으로서 호남의 다양한 서사민요가 유입됨으로써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사민요가 더욱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영남 남부권에서 많이 조사된 유형을 차례대로 들면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쌍가락지) 29편 (11.33%), Ba 베 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베틀노래) 22편 (8.59%),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댕기노래) 15편 (5.86%),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사살하는 아내(진주낭군) 15편 (5.86%), Id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남도령 서처자노래) 14편 (5.47%), Gb 처녀의 저주로

16)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9, 130쪽.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이사원네 만팔애기) 14편 (5.47%),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주머니노래) 11편 (4.30%), Ib 일하는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11편 (4.30%), Mb 쥐가 남긴 밤을 아이와 나눠먹는 사람(달강달강) 11편 (4.30%),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떠느리 10편 (3.91%) 등이다.

이를 보면 영남 남부권에서는 영남의 다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는 Ba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전승되고 대신 Ea 유형이 가장 많이 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남 남부권이 낙동강 남쪽에 자리하면서 해안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 해안 지역의 여성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 관련 일에도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쌈과 관련된 일은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남부 지역은 긴 서사민요보다는 비교적 길이가 짧은 서정적 성향의 서사민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sup>17)</sup>

Ea 유형은 처녀의 부정을 다룬 이야기로 흔히 <쌍금쌍금 쌍가락지>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외에도 남부권에서는 Ia, Ib, Id, Gb 유형과 같이 처녀와 총각, 처녀의 저주 등 애정 관련 유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전승된다. 이는 남부권의 사회적 여건이나 문화 환경이 이들 서사민요를 향유하는 데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Id 유형은 나물을 캐러 간 총각과 처녀가 산에서 정사를 나누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노래로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sup>18)</sup>

한편 비록 많은 각편이 전승되지는 않지만, 영남 남부권의 독특한 유형으로 Ic-2 사모하는 총각을 중이 되어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동국각시) 유형을 들 수 있다. Ic-2 유형은 오직 영남 남부권에서만 3편 조사되었다. 이 유형은 호남 지역에서 많이 전승되는 Ic-1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

17) 권오경은 경남 지역이 경북 지역에 비해 서사민요가 쇠퇴하고 서정민요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경,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 연구: 전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26쪽)

18) 정혜인, 「경남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적 특징과 교육적 적용」,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4쪽.

각 유형과 Aa 유형의 중이 되어 출가하는 여자 모티프가 결합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Ic-2 유형의 전반부는 Ic-1과 마찬가지로 총각이 처녀에게 물을 떠달라고 해 마시고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처녀가 중이 되어 총각의 집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총각의 집에 가 동냥을 달라고 한 뒤 자루를 떨어트려 쌀을 짓가락으로 일일이 담아 하룻밤을 묵는 모티프 역시 Aa 유형과 동일하다. 이 유형 역시 처녀와 총각의 애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부 지역 서사민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록 수는 적지만 영남 북서부권이나 북동부권에서 잘 전승되지 않는 Ad 시집식구가 깨진 그릇 물어내라자 항의하는 며느리(양동가마) 8편 (3.13%),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친정부고) 8편 (3.13%) 등이 남부권에서는 비교적 많이 전승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19)</sup> 이들 유형은 영남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으로 남부권이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과 소통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Ad 유형에서는 호남 지역의 Ad 유형과는 달리 시집식구들이 깨진 그릇을 물어내라고 하자 시집식구들에게 부당함을 항의한 뒤 중노릇을 나가버림으로써 Aa 유형과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호남 지역에서는 며느리가 시집식구들에게 항의를 하자 시집식구들이 며느리에게 굴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데 비해 영남 남부 지역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노릇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Ic-2 유형이 호남 지역에서 많이 전승되는 Ic-1 유형과 Aa 유형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상이다.

이렇게 영남 남부권 서사민요는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애정과 관련된 서정적 성향의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면서, 호남 지역 서사민요

19) 권오경은 발매는 소리로 거창, 성주, 진주 지역 등에서는 주로 ‘출가형’이, 의령, 함양 등에서는 주로 ‘어머니 부고형’이 많이 채록된다고 하였다. 이는 북서부권에서는 Aa 유형이, 남부권에서는 Cb 유형이 주로 전승되는 것으로 파악한 필자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권오경,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 연구: 전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219쪽.)

와의 혼합형을 많이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이는 서사민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요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음악적으로도 영남의 메나리토리 외에 호남의 대표적 선법인 육자배기토리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남부권이 호남 지역과 해안을 통해 연결해 있어서 호남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sup>21)</sup>

####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영·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비교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영남 서사민요의 유형별 전승양상과 권역별 전승양상을 분석하였다. 영남 지역에서는 총 635편의 서사민요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숫자여서 영남 지역이 호남 지역과 함께 서사민요의 양대 집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별 전승양상을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인물 관계에 따라 총 64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영남 지역에서는 Ba 배

20) 황의중은 “경남 남해안 지역의 민요는 전라권 민요의 영향으로 혼합형 민요가 다수 발생, 전승되는 지역적 특질을 가진다. 고성 지방의 상여소리와 모찌는 소리는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가 섞여 있다. 예를 들어 ‘모찌는 소리’의 ‘긴등지’는 메나리토리의 성격이 강하고, 짧은 등지’는 육자배기토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메나리토리에 다른 지역의 선율구조가 들어와 만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하고 있다.(황의중, 「경남 지역 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편, 문화방송, 1994, 25쪽, 131쪽 참조) 권오경 역시 영남 민요의 특질을 살펴보면서 “남해는 거제, 고성과 함께 전라 지역의 민요를 많이 유입한 곳이다. 그 예로 거창, 진주, 진양군은 ‘상사뒤여’로 뒷소리를 삼는다. 호남 농요의 유입에 따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다. (권오경, 앞의 논문,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228쪽.)

21) 황의중, 「경남 지역 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편, (주)문화방송, 1994, 34쪽.



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유형이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남 지역 여성들이 예로부터 길쌈을 주 생업으로 삼아왔으며, 서사민요의 주 기능이 길쌈노동요이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유형과 같은 혼인 전 여자의 애정 관련 유형이 많이 전승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유형을 비롯한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적게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은 호남 지역에서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영남 지역에는 활발하게 전승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유형과,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전승되지 않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도 추출하였다. 이는 영남과 호남의 서사민요가 서로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간에 넘나들지 못하는 경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권역별 전승양상을 영남 북서부권, 영남 북동부권, 영남 남부권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부권, 북서부권, 북동부권의 순서로 서사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남의 서남부권이 북동부권에 비해 양반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과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각 권역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영남 북서부권은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영남 북동부권은 살림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영남 남부권은 애정 관련 서사민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남 북동부권은 전통적으로 양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아 가사의 향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서사민요 역시 이 영향을 입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술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영남 남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정적 성향을 많이 드러내며, 호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과의 혼합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은 서사민요의 또 다른 집산지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통해야만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 서사민요의 총체적 본질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후 영·호남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비교할 후속 연구 및 한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7-1~7-18(경북), 8-1~8-14(경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경북편, (주)문화방송, 1994-1995.

『한국의 발견/한반도와 한국 사람: 경상북도』, 뿌리깊은 나무, 1992.

『한국의 발견/한반도와 한국 사람: 경상남도』, 뿌리깊은 나무, 1992.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권오경, 「영남민요의 전승과 특질」,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217-241쪽.

\_\_\_\_\_,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 연구: 전이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213-245쪽.

김기현·권오경, 『영남의 소리』, 태학사, 1998.

김연순, 「조선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여훈서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42쪽.

- 류경자, 「무가 <당금애기>와 민요 ‘중노래·만팔애기’류의 교섭양상과 변이」, 『한국민요학』 23, 한국민요학회, 2008, 329-355쪽.
- \_\_\_\_\_,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6.
- \_\_\_\_\_,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 성기련, 「율격과 음악적 특성에 의한 장편 가사의 갈래 규정 연구」, 『한국 음악연구』 28집, 한국국악학회, 2000, 263-291쪽.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9.
- 정종환, 「산청지역 서사민요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혜인, 「경남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적 특징과 교육적 적용」,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증보판).
- 최정락, 「영·호남 문학의 특성 고찰: 양지역 조선조 문학의 대비를 통한」, 『어문학』 50, 한국어문학회, 1989, 301-326쪽.
- 최현 외 3명, 「부산·경남 지방 전통민요 조사 연구: 기존학술연구 및 문화적 배경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7, 287-310쪽.
- 한국구연민요연구회, 『한국구연민요』 연구편, 자료편, 집문당, 1997.
- 황의중, 「경남 지역 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주)문화방송, 1994, 32-37쪽.

투고일 : 2010년 6월 30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 Transmission Aspects of Folk ballads in Yeongnam District

Suh, Young-so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ransmission aspects of folk ballads in Yeongnam district. This was performed as the former step to study the comparison of folk ballads between Yeongnam district and Honam district. I surveyed 635 versions of folk ballads and the database of them in Yeongnam district. Yeongnam district have the most versions of folk ballads in Korea.

Folk ballads could be classified into 64 types according to the relation of the protagonist and antagonist of works. The most versions was the Ba type (A weaving woman waiting for her husband). The second was the Ea type (A maiden suspected of the unfaithfulness by her brother) the third was the Ia type (A maiden who lost her pigtail ribbon). These are related with love between bachelor and maiden. In the contrast of that, the Sijipsarinore (Folk ballads about the woman's sufferings from her husband's family) including the type Aa which was handed down the most briskly in the Honam district. The reason of these phenomena was that Yeongnam district have been the authentic confucian society. The married women could not sing freely.

Yeongnam district could be divided into 3 cultural regions, the north-west region, the north-east region and the south region. Folk ballads were handed down the most briskly in the south regions. On the contrary, the least folk ballads were handed down in the north-east region. This shows that folk ballads in Yeongnam district were created and transmitted in the regions which

was exchanged briskly with Honam district. I could find that the folk ballads about the woman's sufferings from her husband's family in the north-west region, the one about the household affairs of women in the north-east regions, the one about the love affairs of maiden in the south, were handed down mostly. Moreover, the mixed types between Yeongnam and Honam were found in the south regions. Those were results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Yeongnam and Honam districts.

The transmission aspects of folk ballads in Yeongnam districts found by this paper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comparison of folk ballads between Yeongnam districts and Honam districts. Therefore, the more expended surveys to the whole districts as well as Honam district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 Yeongnam district, Honam district, Folk ballads, Database, Women, Gasa(歌辭), Transmission aspects, Comparison, Type, Cultural regions, Cultural exchange